



hanguogaikuang

朴永浩 尹允镇 崔羲秀 编著

韩国概况



延边大学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韩国概况

hanguogaikuang

朴永浩 尹允镇 崔羲秀 编著

延边大学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概况/朴永浩,尹允镇,崔羲秀编著.

—延吉:延边大学出版社,2004.9

ISBN 978-7-5634-1962-3

I. 韩… II. ①朴…②尹…③崔… III. 韩国-概况

IV. K931.26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4)第 096592 号

韩国概况

主编:朴永浩 尹允镇 崔羲秀

责任编辑:宋昌洙

出版发行:延边大学出版社

社址: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 邮编:133002

网址:<http://www.ydcbs.com>

E-mail: ydcbs@ydcbs.com

电话:0433-2732435

传真:0433-2732434

发行部电话:0433-2133001

传真:0433-2733266

印刷:北京中创彩色印刷有限公司

开本:787×1092 1/16

印张:18.25 字数:232 千字

印数:1—1000

版次:2009 年 6 月第 1 版

印次:2011 年 8 月第 2 次印刷

ISBN 978-7-5634-1962-3

定价:33.00 元



차 례

I. 지리	1
II. 정치	33
III. 경제	50
IV. 언어와 문학	72
V. 예술	113
VI. 교육과 과학기술	158
VII. 스포츠	166
VIII. 신문, 출판, 문화시설	171
IX. 생활습관	176
단어색인	201
后 记	287



I. 지 리



1. 위치

한국은 한반도(조선반도) 남반부에 있다. 한반도는 경도, 위도 상으로 대략 북위 33~43°, 동경 124~132° 사이의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다. 또 지리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 자리잡은 반도로서 남북으로 뻗어 있고 주변에는 3,950여 개의 섬이 있다.

북쪽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데 국경선이 1,100킬로미터이다. 서쪽은 황해를 사이 두고 중국과 마주 보고 있는데 제일 짧은 거리는 190킬로미터이다. 동쪽은 동해를 사이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부산에서 일본까지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180킬로미터이다. 남쪽은 남해의 다도해(多島海)로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북위 38°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반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남반부에는 대한민국이 성립되었다.

한반도 남북의 길이는 1,100킬로미터로 3,950여 개의 섬까지 합치면 면적이 221,607평방킬로미터가 된다. 그 가운데에서 한국의 면적이 99,393.81평방킬로미터로 약 반도면적의 45%를 차지한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다. 이런 위치의 장점을 이용하여 일찍부터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반도 고유의 문화를 더욱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본에 전해 주기도 하였다.



2. 인구

한국의 인구는 4,460여만 명(1995년)이다. 인구의 분포는 서울(漢城), 부산(釜山), 대구(大邱), 인천(仁川), 광주(光州), 대전(大田) 등 대도시와 경기(京畿)도에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분포되어 있고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역에는 인구가 적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조밀한 국가의 하나로 1995년 통계에 의하면 매 평방킬로미터에 451.3명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천만이 넘는 서울의 인구밀도는 매 평방킬로미터에 17,789명(1995년)에 달하나 강원도는 매 평방킬로미터에 84명(1995년)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인구의 남녀비례(1995년)는 100(여자) 대 101.4(남자)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그리고 연령구조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1955년에는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9%를 차지하였다.



3. 지형

한반도는 산지가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해 쪽으로 치우쳐 있고, 북쪽에는 개마고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전체적으로 북쪽과 동쪽이 높고 남쪽과 서쪽이 낮아 큰 하천의 대부분은 황해와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하천은 완만한 구릉과 평탄한 평야를 지나 흐르기 때문에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구불구불하다.

한반도에서 해발고도가 2,000m 이상의 산지가 (북부지방의 백두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반도면적의 0.4%를 차지한다. 해발고도가 500m에서 1,000m의 산지가 반도면적의 20%를 차지하고 해발고도가 200m에서 500m의 낮은 산과 구릉이 반도면적의 40%를 차지한다. 한반도의 평균 높이는 해발고도가 482m로 아시아의 평균 높이 960m의 절반이다. 한반도의 산맥들은 남북으로 뻗은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에서 대부분 남서방향으로 빗살처럼 뻗어 나가면서 점차 낮은 산지로 변한다.



한반도에 활화산이 없고 지진이 적게 일어나나 백두산, 성인봉, 한라산 등과 같은 휴화산과 철원 - 평강, 신계 - 곡산, 개마고원 등지에 용암대지가 있다.

황해안과 남해안은 크고 작은 반도, 만, 섬들이 많아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해안을 이루고 있다. 특히 남서해안일대는 섬이 많아 다도해라 부른다. 황해와 남해는 대부분 수심이 얇은 대륙붕으로 되어 있다. 황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다. 썰물 때에는 넓은 간석지가 드러나 배가 드나드는 데 불편하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우나 작은 만(灣)들이 적지 않다. 동해는 수심이 해안에서 갑자기 깊어지지만, 바닷물이 맑고 곳곳에 넓은 모래톱과 해안절벽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휴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4. 기후

한반도는 중위도의 온대기후지역에 속하지만, 거대한 아시아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시베리아에서 발생하는 기단과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독특한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하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메마른 북서 계절풍이 불어와서 춥고 강수량이 적다. 반면에, 여름에는 열대해양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 남동계절풍 또는 남서계절풍이 불어와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연평균 기온은 북부의 일부 내륙지방을 제외하고는 8~15℃로 생활하기에 알맞다. 그러나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매우 추워서, 한서의 차이가 큰 대륙성기후의 특색을 잘 나타낸다.

한반도는 남쪽과 북쪽간의 기온차가 크다. 8월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24℃가 넘어 남북의 기온차는 8℃에 불과하지만, 1월에는 제주도가 5.2℃, 중강군(中江郡)이 -20.8℃로 그 차이가 26℃에 달한다. 연평균 기온도 남해안지방이 14℃, 북부지방은 4℃ 정도로, 남북의 기온차가 크다. 이것은 남북



의 위도차가 10°나 되고, 계절풍과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100mm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속한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연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내린다. 강수량은 지형과 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대체로 남쪽지방은 많고 북쪽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비가 많은 곳은 제주도, 남해안, 섬진강 유역, 한강 중상류 및 청천강 중상류 등지로,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를 넘는다. 비가 적은 곳은 관북지방, 대동강하류, 낙동강 중상류 등지로서, 연평균 강수량은 600~1,000mm 정도이다.

한반도는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봄은 3월경부터 시작되어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여름은 남동계절풍이 강해지는 6월경부터 시작된다. 6월 하순경에는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는데, 집중호우와 태풍이 풍수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장마 후에는 30℃를 넘는 한여름 무더위가 나타난다. 가을은 날씨가 맑고 습도가 낮아 1년 중 인간생활에 가장 쾌적한 계절이다. 겨울은 북서계절풍이 강해지는 11월경부터 시작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져 북서계절풍이 불 때에는 기온이 내려간다. 4계절의 길이는 남과 북이 크게 달라서, 북부로 갈수록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여름이 짧아진다.

기후와 관계가 깊은 삼림대는 기후상태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독특하게 나타난다. 남해안지방에는 난대림, 중부지방에는 온대림, 북부지방의 높은 지대에는 냉대림이 많이 분포한다.



5. 산맥

한반도의 주요산맥은 아래와 같다.

● 백두산맥(白头山脉)

백두산맥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양강도를 지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경계를 지나간 산맥으로 해발고도가 2,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주봉이 두류산(頭流山)이다.



●함경산맥(咸鏡山脉)

함경산맥은 백두산맥의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동북방향으로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뻗어 나갔다. 이 산맥에도 해발고도가 2,000m 넘는 산봉우리가 많다. 최고봉인 관모봉(冠帽峰)은 해발고도가 2,540m이다.

●부전령산맥(赴戰嶺山脉)

부전령산맥은 백두산맥 주봉인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뻗어가 낭림산맥과 이어진다. 이 산맥에도 해발고도가 2,000m 넘는 산봉우리가 여럿이 있다.

●낭림산맥(狼林山脉)

낭림산맥은 조선의 자강도(慈江道) 중강군(中江郡)에서 남으로 함경남도까지 뻗어나갔다. 이 산맥의 평균 해발고도가 2,000m 이고 해발고도가 2,000m 이상 되는 산봉우리가 20여 개다.

●강남산맥(江南山脉)

강남산맥은 낭림산맥에서 발원하여 압록강 남쪽을 따라 동북으로부터 서남으로 뻗어 나갔다. 평균 해발고도는 890m이다.

●적유령산맥(狄逾嶺山脉)

적유산맥은 낭림산맥의 주봉인 와갈봉(臥碭峰)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뻗어 나갔다.

●묘향산맥(妙香山脉)

묘향산맥은 낭림산맥에서 발원하여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나갔다. 평균 해발고도는 1,200m 이고 해발고도가 2,000m 넘는 봉우리가 몇이 있다.

●아호비령산맥(阿虎飛嶺山脉)

아호비령산맥은 평안남도와 강원도 경계에서 발원하여 개성의 송악(松岳)까지 뻗은 산맥으로 해발고도는 400~1,300m 사이이다.

●태백산맥(太白山脉)

태백산맥은 한반도에서 제일 긴 산맥으로 길이가 500km이다. 이 산맥



은 강원도 황룡산(黄龙山)에서 발원하여 동해안을 따라 동남방향으로 태백산(太白山)까지 뻗어 나갔는데 해발고도가 1,000m 이고 주봉에는 해발고도가 1,700m 가량의 설악산, 금강산 등이 있다.

●광주산맥(广州山脉)

광주산맥은 태백산맥의 지맥으로 태백산맥의 북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경기도 광주(广州)까지 뻗어 나갔다. 이 산맥의 해발고도는 500 ~ 1,200m 이다.

●차령산맥(车岭山脉)

차령산맥은 태백산의 오대산(五台山)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충청남도의 차도령(车道岭)까지 뻗어 나갔다.

●소백산맥(小白山脉)

소백산맥은 태백산맥 남쪽의 태백산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여수(丽水)반도까지 뻗어 나갔는데 해발고도는 400 ~ 1,400m 이고 최고봉의 지리산 높이는 1,915m 이다.



6. 산봉우리

한반도의 주요한 산봉우리는 아래와 같다.

●백두산(白头山)

백두산은 중국과 조선 국경에 위치한 산봉우리로 해발고도가 2,5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20여 개다. 그 가운데의 장군봉(将军峰)은 해발고도가 2,749.2m 이다. 백두산은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산으로 꼭대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지가 있다. 천지의 동서의 길이가 3.54km, 남북의 길이가 4.50km, 면적이 9.15km²이다. 호수의 평균 깊이가 213.3m 이고 가장 깊은 곳은 384m 이며 총저수량은 19.55억m³이다.

●금강산(金剛山)

금강산은 태백산맥 북부의 강원도의 고성군(高城郡)과 금강군(金剛郡) 경내에 있는 한반도 4대 명산의 하나다. 남북의 길이가 60km, 동서의



너비가 40km 이다. 금강산에는 12,000개의 봉우리가 있고 주봉인 비로봉(毘盧峰)의 높이는 해발고도가 1,638m 이다. 금강산의 서쪽에 내금강(內金剛)이 있고 동쪽에 외금강(外金剛)이 있고 바닷가에 해금강(海金剛)이 있다.

●묘향산(妙香山)

묘향산은 평안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접경지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 한반도 4대 명산의 하나이다. 묘향산의 면적이 375km², 주봉인 비로봉(毘盧峰)의 높이는 해발고도가 1,909m 이다. 이 산은 풍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꽃향기가 그윽하여 묘향산이라 불리운다. 묘향산의 기묘한 석회암동굴과 폭포들이 장관이다.

●칠보산(七宝山)

칠보산은 함경북도 명천군(明川郡) 중부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 면적이 250km²이고 해발고도가 659m 이다. 칠보산은 내칠보(內七宝), 외칠보(外七宝), 해칠보(海七宝)로 나뉜다. 외칠보에는 만물상(万物相), 장군암(將軍岩), 처녀암(處女岩) 등 명승이 있고, 내칠보에는 오봉산(五峰山), 만월대(滿月台), 해망대(海望台), 금강담(金剛潭), 천연동(天然洞) 등 경물이 있으며 해칠보에는 해식단애(海蝕斷崖)와 동굴(洞窟)이 유명하다.

●설악산(雪岳山)

설악산은 태백산맥의 최고봉으로 해발고도가 1,708m 이다. 산정에 반년 가량 눈이 쌓여 있기에 설악산이라 한다. 설악산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의 동쪽을 외설악(外雪岳)이라 하고 서쪽을 내설악(內雪岳)이라 한다. 내설악에 많은 폭포와 늪이 있다.

●태백산(太白山)

태백산은 태백산맥 남쪽끝인 강원도 삼척군(三陟郡)과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해발고도가 1,561m 이다. 산꼭대기에 남북의 길이가 1.5km, 동서의 너비가 200~500m 의 고원이 있다. 산주위에 심산유곡이 있고 남쪽기슭이 낙동강발원지이다.



●지리산(智異山)

지리산은 소백산맥의 최고봉으로 주봉인 천왕봉(天王峰)은 해발고도가 1,915m이며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경계에 위치해 있다. 이 산은 한국경내에서 한라산 다음의 높은 산으로 산에는 한운대, 온대, 아열대 식물들이 무성하고 삼림에는 보귀한 약재와 진귀한 야생동물들이 있다.

●속리산(俗離山)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소금강산(小金剛山) 혹은 구봉산(九峰山)이라고도 부른다. 속리산은 경치가 수려하여 한반도 팔경(八景)의 하나로 되고 있다. 속리산에는 9개 산봉우리가 있는데 제일 높은 봉이 해발고도가 1,058m이다.

●한라산(漢拿山)

제주도 중부에 위치해 있는 한라산은 해발고도가 1,950m로 한국경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한라산은 휴화산으로 꼭대기에 직경 30m, 깊이 6m의 화산호수인 백록담(白鹿潭)이 있다. 산에는 아열대, 온대, 아한대(亞寒帶)의 식물과 진귀한 야생동물들이 있다.



7. 고원

한반도의 주요한 고원은 아래와 같다.

●개마고원(蓋馬高原)

개마고원은 한반도 북부 부전령산맥, 낭림산맥, 압록강 사이에 위치해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1,340m 이고 면적이 1.43만km²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고 제일 넓은 고원이다. 이 고원에는 풍부한 목재자원과 수력발전자원이 있다.

●백무고원(白茂高原)

백무고원은 함경산맥, 백두산맥, 두만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평균 해발고도는 1,000m 이다. 이 고원에는 삼림자원이 풍부하고 이 고원에 있는



무산(茂山)철광은 세계에서 유명한 철광이다. 그리고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부전고원(赴戰高原)

개마고원 남쪽에 위치해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1,400m 이고 주변에는 해발고도가 2,000m 되는 높은 산들이 있고 가운데에 부전호(赴戰湖)가 있다.

●영서고원(嶺西高原)

영서고원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광주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평균 해발고도가 870m 이고 면적은 4,240km²이다.

●진안고원(鎭安高原)

전라남도 진안군(鎭安郡)에 위치해 있다. 남북의 길이는 40km, 동서의 너비는 10~20km, 평균 해발고도가 400~500m 이다.



8. 평원

한반도의 주요한 평원은 아래와 같다.

●용천평원(龍川平原)

용천평원은 압록강 지류인 삼교천(三橋川)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원으로 압록강 하류에 있다. 이 평원의 평균 해발고도가 20~50m 이고 면적은 360km²이다.

●안주평원(安州平原)

안주평원은 청천강(淸川江) 하류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평균 해발고도가 20~25m 이고 면적은 400km²이다.

●평양준평원(平壤準平原)

평양준평원은 평양 남쪽에 위치해 있다. 평균 해발고도가 30~50m 가량이고 면적은 500km²이다.

●재녕평원(載寧平原)

재녕평원은 황해남도 재녕강(載寧江) 연안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500km²이고 해발 고도는 20m 인데 하류의 충적평원(衝積平原)은 해발고도가 2~5m 이다.

●연백평원(延白平原)

연백평원은 황해남도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400km²이다. 북부는 해발 100m 의 구릉이고 남부는 해발고도가 50m 의 평탄한 충적지이다.

●평택평원(平澤平原)

평택평원은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평택(平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평원이다. 면적이 200km²이고 토지가 비옥하다.

●예당평원(禮唐平原)

예당평원은 충청남도 북부의 삽교천(插橋川) 등 세 갈래 강의 충적으로 형성된 충적평원이다. 면적이 280km²이고 지세가 평탄하고 서쪽이 바다에 닿아 있다.

●내포평원(內浦平原)

내포평원은 금강(錦江)하류의 충적평원으로 면적이 250km²이다. 남쪽이 호남(湖南)평원과 이어져 있고 동쪽이 대전(大田)과 인접해 있다.

●호남평원(湖南平原)

호남평원은 전라북도 서부에 위치해 있는 평원으로서 한반도에서 제일 큰 평원이다. 면적이 500여 평방킬로미터이고 토지가 비옥하다.

●전남평원(全南平原)

전남평원은 전라남도 영산강(榮山江)연안의 충적평원으로 면적이 300km²이고 토지가 비옥하고 수원이 풍부하여 관개에 이롭다.

●김해평원(金海平原)

김해평원은 낙동강(洛東江)하류의 충적평원으로 면적이 200km²이다.



9. 도서(島嶼)

한반도에는 3,950여 개의 도서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한국에 속한 도



서가 2,960개인데 사람이 사는 섬이 705개이고 나머지는 무인도이다. 한반도의 주요한 섬은 아래와 같다.

●제주도(济州岛)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제일 큰 섬으로 반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이 $1,826\text{km}^2$ 로 동서의 길이가 73km , 남북의 너비가 41km 이다.

●거제도(巨济岛)

거제도는 경상남도 남해안 진해만(鎭海湾) 남쪽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374.9km^2 로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진도(珍岛)

진도는 전라남도 진도군(珍岛郡)에 속하는 섬으로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이 353.8km^2 이고 주위에 137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진도와 함께 진도군을 이루었다.

●강화도(江华岛)

강화도는 경기도 강화만(江海湾)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이 300km^2 이다.

●남해도(南海岛)

남해도는 경상남도 서남쪽 여수만(丽水湾) 동쪽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298.4km^2 로서 한반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안면도(安眠岛)

충청남도 서해안 태안반도(泰安半岛) 남쪽 10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남북으로 뻗어 장방형으로 된 섬으로 면적이 105.4km^2 이다.

●완도(莞岛)

전라남도 남쪽에 위치해 있다. 주위에 130여 개의 작은 섬과 함께 완도군(莞岛郡)을 이루고 있는데 면적이 85.3km^2 이다.

●울릉도(郁陵岛)

조선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경상북도 울릉군(郁陵郡)에 속한다. 육지와와의 거리가 130km 이고 면적이 72.9km^2 이다.



●돌산도(突山島)

전라남도 여수반도(麗水半島)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면적이 68.9km²이다.



10. 강

한반도 대부분의 중요한 강들은 서부나 남부로 흘러 황해와 조선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한반도의 주요한 강들은 아래와 같다.

●압록강(鴨綠江)

백두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중국과 조선 국경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길이가 790.4km로 한반도에서 제일 큰 강이다.

●낙동강(洛東江)

낙동강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으로 태백산 북부에 위치한 함백산(咸白山) 남쪽기슭에서 발원하여 경상남북도를 경유하여 부산(釜山) 서쪽에서 조선해협으로 흘러든다. 길이는 521.5km이다.

●두만강(豆滿江)

두만강은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강으로 백두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동해로 들어간다. 하류의 하구(河口)가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과 조선 사이의 국경이다. 길이는 520.5km이다.

●한강(漢江)

한강은 오대산(五台山)에서 발원한다. 서울 동쪽에서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北漢江)과 합류하고 서울을 지난 다음 임진강(臨津江)과 합류하여 강화만(江華灣)으로 흘러든다.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큰 강으로 길이는 481.7km이다.

●대동강(大洞江)

낭림산(狼林山) 동쪽에서 발원하여 묘향산 남쪽에서 서남으로 흐르면서 조선 평양(平壤)을 지나 남포(南浦)부근에서 황해로 흘러든다. 한반도에서 다섯 번째 큰 강으로 길이는 439km이다.



●금강(錦江)

전라북도 장수군(長水郡) 사두봉(蛇頭峰)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한반도에서 여섯 번째 큰 강으로 길이는 395.9km 이다.

●청천강(淸川江)

낭림산(狼林山) 서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자강도(慈江道)와 평안남북도 경계를 거쳐 서쪽으로 황해로 흘러 들어간다. 길이는 199km 이다.



11. 식물

한반도의 식물종류는 매우 풍부하여 3,300여 종에 달한다. 그리고 식물종류의 밀도도 비슷한 위도(緯度)의 유럽나라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매우 높다.

한반도의 식물분포는 아한대(亞寒帶) 침엽수림대, 온대(溫帶) 낙엽활엽수림대, 아열대(亞熱帶) 상록수림대로 나뉜다.

아한대 침엽수는 북부지방의 개마고원, 백무고원의 해발고도가 1,000m 이상 지대와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의 해발고도가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분포되어 있다.

온대 낙엽활엽수는 연평균 기온이 $5^{\circ} \sim 14^{\circ}$ 사이의 반도 북부, 중부, 남부의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아열대 상록수는 연평균 기온이 14° 이상 되는 남부해안 지대와 제주도, 울릉도 등의 도서에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는 해발고도가 500m 이하의 지대에, 완도는 해발고도가 300m 이하의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식물의 수직분포가 가장 선명한 곳이 한라산이다. 한라산 남쪽기슭은 해발고도가 600m, 북쪽 기슭은 해발고도가 400m 이하에 아열대 상록수가 분포되어 있고, 해발고도가 600~1,500m 사이에 온대 낙엽활엽수가 분포되어 있고, 해발고도가 1,500m 이상에 아한대 침엽수가 분포되어 있다.